

영암시니어클럽, 고령자친화기업 'The 기찬밥상 premium' 개소

서부권 주민 숙원 반영, 사회적협동조합 중심의 공익·상생 복지모델 본격 가동

영암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선정된 'The 기찬밥상 premium'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2호점 개소는 단순한 일자리 사업을 넘어, 서부권 주민의 지속적인 요청, 사회적협동조합 중심의 공익적 운영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기찬밥상 2호점은 삼호천하음식관 3층(132석, 515.9㎡ 규모)에 자리잡고 있으며, HD현대삼호와 영암군 고향사랑기금의 대응투자를 통해 총 19명의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됐다. 본 사업은 영암시니어클럽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정성그린'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공익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이번 2호점 설치에는 그동안 삼호읍 어르신 가치토크, 이동군수실 건의사항 등 지속적인 서부권 주민의 요구가 계속되었고 이를 반영한 결과로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추진인 영암시니어클럽은 기획 초기부터 해당지역 상권 분석과 상인회

관련자 미팅 등을 통해 상권 침해 우려에 대해 소통과 조율을 진행했으며, 특히 HD삼호현대에서 권유한 1층 상가를 피해 건립 후 한 번도 이용되지 않았던 3층을 선택하여 주변 상권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진행했다.

기찬밥상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통한 지역 소비 촉진, 은퇴 소상공인의 재취업 연계, QR코드를 통한 지역 식당 정보 홍보 등 다각적 방식으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식당 운영 수익 일부를 다시 지역 사회 공익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경제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영암읍에 운영 중인 기찬밥상 1호점은 고령자 아파트 입주어르신 20~30명에게 매일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시락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공익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1호점의 안정적 운영 성과는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며, 2호점 설치에 대한 명분과 기대감을 높이는 기반이 됐다. 특히, 어르신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물론, 식사를 받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기찬밥상이 단순한 식당이 아닌, 지역을 잇는 따뜻한 공동체 플랫폼임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영암읍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과 교육·마케팅을 연계한 맞춤형 소상공인 종합지원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주말오픈상가 지원 △월출페이 결제 확대 △대출이자 지원

△공공배달업 활성화 △경영패키지 지원 등

장영범 영암시니어클럽장은 "기찬밥상 2호점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살게 한 삶의 공동체이며, 공익과 상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The 기찬밥상 Premium'은 고령자를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일원이자 주체로 세우는 '영암형 생산적 복지'의 대표 사례로, 주민만족도와 정책 지속가능성을 함께 갖춘 공공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구례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간담회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간담회 성료

전남 구례군은 지난 28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역량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례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읍·면 기동대장과 대원 12명, 업무 관계자 11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도 복지기동대의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구례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긴급 수리, 주거환경 개선, 노후주택 전기·가스 등 전기 안전 점검과 같은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

는 주요 사항으로 ▲ 구례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회의 참석 수당 지원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할링프로그램 추진 ▲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2025년도에 이어 ▲ 저소득 아동·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 ▲ 화재 위험가구 노후 전기·전선 교체사업 등을 논의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구례/한정호 기자

차남복 조도면 동거자 향우회장, 진도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고향 진도 응원 위해 3년 연속으로 매년 100만 원씩 기부

진도군 조도면 동거자 향우회장인 차남복 씨가 진도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차남복 향우회장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만 원씩 고향 사랑기부에 참여하며, 고향 발전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두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차남복 향우회장은 "고향 진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기부를 하고 있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을 응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3년 연속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신 결과"라며, "기부금은 지역의 복지 증진과 인구감소 대응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기부사업인 '보배섬 진도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진도군 지정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7년까지 5억 원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보성군, '별사모' 별교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보성군은 지난 1월 30일 별교음행정복지센터에서 '별사모(별교를 사랑하는 모임)'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이웃사랑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별사모 유미옥 단장은 "춤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단체가 되고자 성금 기탁에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문화 활동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등

아리로 꾸준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서진석 별교음장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별사모는 2023년 창단된 여성 청년 중심의 댄스동아리로, 현재 3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역동적인 댄스 공연을 통해 지역 행사 참여와 공연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김윤기 기자

함평군 월야면 복지기동대, 새해 첫 주거 환경 개선 활동 전개

전남 함평군 월야면은 "지난 29일 월야면 복지기동대가 올해 첫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은 생활폐기물이 장기간 대량으로 방치돼 주거 환경이 크게 훼손된 독거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포크레인과 5t 암물 차량·1t 트럭 등 각종 장비가 투입돼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며 열악한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다. 이날 현장에는 박승이 월야면장이 직접 참여해 복지기동대 활동을 격려했으며, 예비군 월야면대와 월야파출소·함평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도 함께해 안전 관리와 원활한 작업을 지원했다.

정정오 월야면 복지기동대장은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쓰레기로 뒤덮인 마당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



다"며 "앞으로도 복지기동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가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제54회 강진청자축제

휴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